

umsifu Bwana(주님을 찬양 드리며) 동부아프리카 선교회를 통하여 탄자니아에 선교하시는 교회들과 식구들께 안부 드립니다.

춡고 고르지 못한 일기 속에 모두들 평안 하신지요? 올 겨울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유난히 춡다는 소식 듣고 있습니다. 이제 곳 환절기가 시작 될 텐데 모두모두 강건 하시길 기도합니다.

이곳 사역지도 바쁨의 연속 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기쁨들이 솔솔 흐르고 있습니다.

사실 그 동안 늘 재정적으로 거룩한 부담의 글을 많이 드러잖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

이었지만요. 그래서 이번 2 월 선교소식은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기쁨의 소식들을 나누려 합니다. 마음 편히 읽을 수 있는 그런 소식들을 찾아 보았습니다.

탕가 신학교 소식.

57 명 전교생 모두 평안 합니다. 올 해부터 근무를 시작한 George Nywage 학장님을 비롯해 모두가 한 식구가 되어 수고들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반적인 관리는 제가 하고 있지만 그래도 예년에 비하여 시간이 줄어들고 그 시간을 리빙스톤 중고등 학교 쪽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중간 고사 기간이며 시험이 끝나면 금요일에 년 중 행사인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미니 축구, 줄다리기, 발 야구 등등의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또한 신학교 3 학년 학생들이 주일 예배 때에 리빙스톤 학교를 방문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신학교는 이제 많이 성숙해 졌습니다. 안정된 Staff 들의 Leadership 이 신학교의 평온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 부임한 학장님을 위주로 한 단계 더 큰 발전이 있어질 것을 믿습니다.

올 해의 중요한 행사로는 8 월에 갖게 될 제 3 회 총 동창회 입니다. 총 동창회는 매 2 년마다 갖게 되는데 부부 동반하여 특별 강사님과 각 분과 강사님들을 초청하여 말씀과 교제의 시간을 나누게 됩니다. 올 해의 특별 강사님은 미국 북 버지니아에 있는 열린문 장로교회 담임 이신 김영훈 목사님이시며 그 밖에도 각 분과 별로 특별 강사님들이 수고들 하시게 됩니다. 기간은 8 월 5 일부터 9 일 까지 입니다. 많은 기도 부탁 드립니다.

리빙 스톤(Living Stone) 중학교 소식.

신생 학교이지만 빠른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 해 신입생들은(중 1 학년) 정원이 120 명 인데 1 명이 더 추가되어 121 명(약 300 명 응시)이 입학을 했으며, 중 2 학년 학생들도 14 명(45 명 응시)이 편입하여 105 명이 되었습니다. 학생 수가 많아져서 사역 자들은 더 바빠졌지만 그래도 발전 하는 모습을 보면 기분이 흐뭇합니다.

건축으로는 컴퓨터 실이 거의 완공이 되어가고 도서관 역시 기둥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올 6 월 말에 미국 메릴랜드 주에 있는 벤엘 교회에서 영어 캠프를 열기 위해 영어교사들이 대거 방문하게 됩니다. 영어캠프는 약 2 주간 갖게 되며 리빙스톤 학교의 질적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됩니다.

매일 저녁 30 분씩 갖는 기도회 시간과 주일 예배 시간은 그야말로 영적 부흥 시간입니다. 회교도 학생들이 약 15%이상인데 그들도 이제는 마치 기독교학생들처럼 찬양하고 춤추고 아멘, 할렐루야를 외치며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발전이 있기까지 교목이신 Innocent

Kamote 목사님의 헌신이 대단 합니다. 학생들 모두가 영적으로도 탄자니아의 변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훌륭한 사람들로 성장 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요즘 이곳은 근래에 보기 드문 가뭄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가는 곳 마다 물 전쟁 입니다. 우리 리빙 스톤 학교도 물이 부족하여 최근에 우물 한 곳을 더 팠습니다. 92 미터를 시추했고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물의 량은 시간당 약 5 천 리터 이며 이제 수중 펌프 경비가 마련 되는데로 설치하면 물 부족의 사태는 해결 될 것입니다. 우물 파기에 수고하신 분들은 한국 선교사님들(NGO)이십니다. 3 년 전에 첫 번째 우물을 파주신 분들 이지요.

뿐만 아니라 컴퓨터 교육을 담당 할 선교사가 한국으로부터 도착 했습니다. 윤여환 선교사 부부 입니다. 이제 컴퓨터 실 마지막 정리가 끝나면 지난해 한국에서 컨테이너로 우송해온 컴퓨터를 설치하여 학생들을 교육하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필요한 물품들은 한동안 계속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매 해 새로 입학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이지요.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건축

교회 건축은 한국 인천에 있는 인천교회(담임 김진욱 목사)의 후원으로 건축하고 있습니다. 인천교회는 해마다 1-2 개의 교회를 건축 하고 있으며 현재 6 번째 교회의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슬람들이 강한 이곳 탕가 지역에 10 개 교회의 건축을 위하여 기도 중에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가득 하길 기도합니다. 교회 건축은 지난 15 년 동안 저와 함께 건축의 일을 하고 있는 Kisaika 형제 팀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리빙스톤 학교의 건축을 진행하면서도 필요한 기술자들과 인력을 잘 분배하여 교회 건축을 돕고 있습니다. Kisaika 형제는 이곳 사역을 위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귀한 천사 입니다.

기도제목을 나눕니다.

1. 계속 된 신학교의 안정을 위하여. (특히 새로운 학장님을 위주로 평온의 성장이 있길)
2. 리빙스톤 학교의 학생들의 영적 성장과 교육 향상 그리고 건강을 위하여(교사들의 수고)
3. 공사 중에 있는 컴퓨터 실 마무리와 도서관 건축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4. **내년도 신입생들이 기거 할 기숙사 기공을 위하여.(이 사항은 필 수 입니다)**
5. 지난 1 월에 미국에서 보낸 리빙스톤 학교의 도서들이 잘 도착 할 수 있도록.
6. 박 선교사와 함께 동역하는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하나됨을 위하여.

리빙스톤 학교와 탕가 신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기도와 물질로 후원 하시는 교회들과 후원자 분들께 이런 시간을 통하여 다시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 합니다.

2013 년 2 월 18 일

탄자니아에서 박윤석 선교사 올림.